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홍형식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장

정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된 이후 각 후보들이 2030 세대를 잡기 위해 본격적인 경쟁에 뛰어 들었다. 과거 같으면 40대를 겨냥했을 텐데, 분명 달라진 모습이다. 그러나 2030세대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지했다는 측면에서는 달라졌지만,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다가서는 모습은 예전과 달라진 것 같지 않다.

과거 선거를 보면 민주당은 '어차피 2030은 40대를 따라 민주당을 지지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랬기에 단지 2030이 투표장에 많이 나오는 방도만 찾았다. 반면 보수정당은 2030에 대해 방도를 찾지 못하고 사실상 포기하거나 중장년 전통적 지지층의 결집에 집중했다. 그대 대책이 없다 보니 2030의 투표율이 낮아지기만을 내심 바랐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보수의 바람과 달리 2030이 투표장에 나오기 시작했고, 투표장에 나와서는 더 이상 40대와 동행하지 않으면서 민주당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2030을 잡기 위해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소통'이다. 청년과의 만남 이벤트를 기획하거나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들을 영입한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벤트와 레토릭이 등장한다. 'With 석열이형' 등이 그것이다. 그렇지만 무대만 바꾸고 비슷한 얼

2030세대 더 이상 이용하지 말라!

굴에 분절만 하고 나타나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혁신과 변화로 새로 태어나지 않았는데도 과연 그 얼굴이 이쁘게 보이고 다르게 보일까?

다른 한 편에서는 프레임과 2분법 구도로 단순화시켜 '30대 워킹맘 공동선대위원장'과 같은 상징 조작으로 2030에게 마법을 건다. 그러면 과연 30대 공동선대 위원장에 대해 2030세대는 '우리를 대표하고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 자신도 모르는 인물이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해 제1여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당 대표와 같은 급에 올라 자신들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잔다르크라도 된다고 생각할까? 오히려 박탈감만 더 키울 것이다.

아직까지는 각 후보들의 2030 접근 방식이 과거와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인다. 그러기에 지금까지는 2030이 어느 후보에게도 마음을 잘 열려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2030이 혐오하는 과거의 방식으로 다가오니 더 거리를 두려 하기도 한다.

후보들이 다가가려는 2030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비합리성이다. 다시 말해 공정과 공존-공생의 가치를 지향하며 합리적 논증과 민주적 소통 없이 후보들의 생각만 이야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그러기에 보수나 진보 포함 정치권이나 후보들은 2030이 어떻게 교육을 받았고, 어떤 가치를 지향하며, 어떤 이해관계에 쫓기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 기존의 정치적 틀에 갇힌 화법으로는 2030의 표심을 얻지 못한다.

2030은 먼저 교육에서 윗세대와 많이 다르다. 2030은 학교에서 자기 주도 학습으로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

지 파악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도출한다. 또한 다른 의견들과도 소통하면서 공존하는 방식을 배워 왔다. 그러기에 2030은 합리적 논증이나 토론이 없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이들은 경쟁을 다르게 본다. 윗세대와 달리 경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력과 스펙을 쌓으면서 공정을 요구한다. 그렇다고 승자 독식을 주장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공존-공생을 이야기한다. 이런 점에서 평등을 주장하는 40대와 다르다.

이들은 이렇게 준비해서 사회에 진출하려고 하지만, 노동시장은 이미 먼저 진입해 조직화된 힘으로 노동기득권을 지키는 40대 세대에 막히고,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은 60대 이상 산업화 세대 등에 막히고 있다. 이제 막 취업을 하여 가정을 이룰 희망에 찬 꿈으로 사회에 진출하려는 미래 세대에게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절망적 벽이다. 그러면서 스스로 뛰어넘으라고, 뛰어넘지 못하면 너희들 능력의 문제라고 하고 있다. 그래서 미래 세대는 50-60대를 끈대라 하지만, 40대도 끈대라 한다.

그럼 대선 후보들이 2030 표심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간단하다. 2030이 추구하는 가치가 옳다면, 그리고 그들이 쌓은 실력과 스펙을 인정한다면, 그들의 실질적 사회 진출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국가 비전과 정책 및 공약을 만들어 주고 실현해야 한다. 더 이상 무의미한 이벤트나 공허한 레토릭, 그들이 선출하지도 않은 인물을 내세워 여론 물의를 하려는 상징조작과 같은 술수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2030 자신들이 더 잘 알아 가고 있다. 자신들이 어떻게 무시당했고 이용당했는지를.

종교칼럼

다시 오실 때는 무엇을 주시려나



최현열 광주연합교회 담임목사

군인으로 복무하던 시절 나의 별명은 '산타'였다. 사단 기독교 군중병으로 복무를 했기 때문에 군중 참모인 목사님을 보좌했다. 그리고 기독교 예배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예배당을 관리했다. 그 외 행정적인 일들을 하는 것이 나의 주 업무였다. 군중병만의 특권이 있었는데 바로 군 선교 물품들을 관리하는 것이다. 그런 물품 중에는 음료 및 과자들도 많았다.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정리가 끝나면 내무반으로 복귀를 하게 되는데 거의 매주 나의 양손에는 먹을 것들이 들려 있었다. 장병들뿐만 아니라 간부들조차도 나의 간식거리를 기다렸다. 특별한 날은 치킨이나 피자도 가지고 들어갔으니 얼마나 인기가 좋았겠는가. 그 어느 때보다 크리스마스에는 선물이 풍성했다. 진짜 산타가 된 기분이었다. 해마다 겨울이 되면 따뜻한 차와 초코파이를 들고 경계 근무를 서는 장병들에게 나눠 주며 겨울을 보냈던 그때가 생각난다.

나에게 기분 좋은 선물을 주는 이들은 언제나 기다려지고 마음을 설레게 만든다.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인류에게 큰 선물을 주셨다. 다시 오실 때는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려나? 지금은 기독교의 절기 중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다. 해마다 대림절은 12월 30일에서 가까운 주일부터 4주간을 지낸다. 그래서 올해는 11월 28일부터 시작되었다. 기독교인들은 이 시기를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순수한 사랑의 마음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이 공존하는 기간으로 보낸다. 이렇게 기다리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는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며 동방박사들처럼 진귀한 보물이나 선물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해 주느냐에 관심을 갖기보다 형제와 이웃에게, 특히나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과 온정을 베풀기를 원하신다.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에 보면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 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해 주셨다.

금년 크리스마스에는 교회에서 하는 축하 행사와 예

배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고 아울러 형제와 이웃을 돌아보는 것에도 마음을 쏟았으면 좋겠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기를 바란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사랑하기를 아주 잘했다. 그리고 교회 사랑도 참 많이 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도, 교회를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이웃에게 나타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럼 이웃과 어떻게 하면 될까? 작은 것이나마 그들을 생각하며 선물을 준비해서 나눠줬으면 한다. 대형 마트나 온라인 쇼핑만을 고집하지 말고 주변의 작은 가게에 들러서 기본 종제 선물들을 사고 인사를 나누자. "왜 이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하고 묻는다면 "예, 크리스마스잖아요.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그리고 그 선물들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또 웃음과 기쁨을 선사하자. "메리 크리스마스!"를 크게 외치며 말이다.

예전에는 새벽 송을 들면 종교를 떠나서 반겨 주고 미리 준비한 선물들을 주시곤 했다. 언제부터인가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지만 이제는 즐겁게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의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이같이 한다면 집집마다 골목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가 넘쳐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올해 크리스마스의 새벽별은 유난히도 반짝이지 않겠는가 말이다. 별이 반짝이면 그 별을 보고 먼 데서 찾아오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동방박사들이 그랬듯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이 환박웃음을 지으시며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생일 선물이 될 것이다.

社說

지방선거 후보 치밀한 검증·평가 필요하다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지방선거가 어느덧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대통령 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이라 겹으로는 조용하지만 일부 지역에선 입지자들의 물밑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원들을 대상으로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벌이는 등 사실상 지방정부가 선거 모드로 들어갔다.

호남에서 지방선거의 최대 관심사는 민주당 후보가 어떤 과정을 거쳐 누가 선출되는가이다. 민주당 당내 경선이 사실상 본선이라는 점은 이번에도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민주당 후보들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경선 과정에서 후보에 대한 치밀한 검증과 평가가 중요하다.

광주시장 선거는 이용섭 시장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간 리턴매치를 중심으로 몇몇 후보가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한다. 전남 지역 일부 시군에선 지역 구 위원장이 예비·사전 경선 형태로 출세 우기를 시도하는 구태 정치의 모습도 포

착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과 맞물려 있어 민주당의 대서면과 이재명 후보의 당선 여부가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 민주당은 과거처럼 '용광로 선대위'나 '원 팀 대선'을 명분으로 탈당 정치인에 대한 복당 움직임에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복당 원칙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철새 정치인의 '무혈 복귀'라는 비난 속에 후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이재명 후보의 당선 여부에 따라 이후 보를 도운 후보의 생사도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민주당이 오는 20일까지 일정으로 진행 중인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도 잡음 없이 진행돼야 한다. 광주·전남에선 기초단체장 4명이 하위 20%에 포함돼 감점을 받게 되는데, 평가 잣대를 모두에게 엄정하게 적용해야 흑사라도 있을 경선 후폭풍을 예방할 수 있다. 민주당은 뒷날 민심을 정확히 파악해 치밀한 검증으로 유권자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선출해야 할 것이다.

여전한 '숨방망이 처벌' 줄지 않는 산업재해

사법 당국의 느슨한 처벌로 인해 산업 현장 안전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 강화됐지만 판결 현장까지는 미치지 못해 산재 사고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산업안전 보건의료에 대한 새로운 양형 기준은 지난 7월 이후부터 재판에 적용되고 있다. 노동자 사망 산업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양형 기준은 기본 6개월~1년 6개월에서 징역 1년~2년 6개월로 상향했다. 다수 노동자가 다치거나 숨진 경우, 5년 이내 반복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가중처벌 대상으로 포함해 최대 징역 10년 6개월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광주지법은 지난 7월 업무상과 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과 굴착기 기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 8월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

다. 모두 작입자가 숨지는 사고였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검찰의 구형량과 법원 선고 형량 모두 새로운 양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반발하기도 했다.

이처럼 사법부의 느슨한 처벌로 인해 산재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올해 9월 이후까지 광주노동청 관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요양자는 1만 671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9586명)보다 1000여 명 늘어났다.

산업현장 안전을 강화하고 노동자 사망 사고와 중대 재해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 당국의 연약한 처벌 수위는 법치주의와 산업안전사고 증가를 부추긴다. 사법 당국은 새롭게 적용된 양형 기준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판결로 산재 예방 의지를 확연히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세상에는 두 부류의 축구 스타가 있다고 한다. 발롱도르를 받은 선수와 그렇지 못한 선수다. 발롱도르(Ballon d'or)는 프랑스어로 '황금빛 공'이라는 뜻이다. 프랑스 축구 전문 잡지 '프랑스 풋볼'이 1956년부터 매년 전 세계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축구 선수에게 주는 상이다. 한국 등 세계 각국의 기자들이 투표로 수상자를 선정하며 전통과 권위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

'축구의 신' 메시가 올해 일곱 번째 발롱도르를 차지하며 역대 최다 수상 기록을 스스로 갈아치웠다. 크루이프·반 바스텐이 3회 수상한 것과 비교하면

경기에서 55골을 넣고, 독일 분데스리가 뮌헨에 트레블(3관왕)을 안기는 등 압도적인 업적을 쌓았는데, 메시를 넘지 못했다. 인터네이션은 앙리 베컴·루프 뮐러 등의 실력을 갖췄지만 발롱도르를 받지 못한 비윤의 스타 베스트 11이 떠올랐다.

발롱도르 수상의 아쉬움은 한국 선수들에게도 있다. 차범근은 1970~80년대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며 '공격수 톱'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유럽 선수들에게만 수상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두 선수가 발롱도르를 각각 두 차례 수상할 때 차범근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했다. 2007

년 후보 선정의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한 이후 비로소 설기현과 박지성이 후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 2019년에는 손흥민이 최종투표에서 22위를 차지해 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렇다하면 국가대표팀의 주장 손흥민은 발롱도르를 차지할 수 있을까? 한국이 월드컵에서 우승하고 토트넘이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그때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그러나 올해 메시의 발롱도르 수상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독일 언론이 발롱도르를 인기투표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레반도프스키가 지난 시즌 공식

/유재관 편집1부장 jkyou@

기고

경찰관의 총기 사용 어디까지?



한기민 전남도경우회장 호남대경찰학과 교수

최근 인천경찰청 산하에서 발생한 중간 소음 난동 사건에 대한 현장 출동 경찰의 조치 미흡으로 일가족 세 명이 중상을 입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출동 경찰의 미흡한 조치에 대한 전국민적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져 경찰청장까지 나서 공식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현장 출동 경찰관은 현장에서 받은 충격으로 트라우마가 생겨 잘 기억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가운데 "출동 경찰관을 파면하라"는 국민 청원까지 나온 상황이다. 이러한 경찰청장이 나서 공식 사과할 수밖에 없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당시 상황을 종합하자면 지난달 15일 인천경찰청 모 지구대 소속 A순경과 B경위가 "위층에 사는 C씨가 난동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출동 경찰관이 대응하던 중 C씨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아래층 주부를 찌르고 저항하는 딸과 남편에게도 상해를 가했다. 현장에서 중상을 입은 주부는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피해자 가족이나 시민들은 한결같이 경찰의 초동 조치 미흡으로 피해가 커졌다고 비난하고 있다. 범죄 의지를 꺾고 범죄로부터 국민의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은 결국 경찰의 몫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 경찰 본연의 직무라는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명시돼 있다. 한데 출동 경찰이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니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을 들 수 없다. 인천 흉기 난동 제압 과정에서 노점된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경찰과 시민들에게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경찰관의 교육과 훈련, 경찰장구 및 무기 사용을 현실의 요건이 맞게 손질해 줘야 한다고 본다. 즉 현장 출동 경찰관이 주관적 판단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선 제압 후 보고' 등의 체계를 확립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출동한 경찰관이 상황에 따라 판단해 무기를 적절히 사용하고, 차후 책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줘야 이번과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때 경찰관의 과잉 대응 범위가 기준도 명확히 해야 한다. 그에 따른 범죄 현장에서 인명을 해치고 난동을 부리는 범인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제압할 수 있다. 경찰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아닌가 싶다.

다음으로, 난동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관은 가능한 한 현장에서 위력이 분산되지 않도록 지근 거리(2~3m)

에 위치해야 한다. 또한 현장에는 반드시 2인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인원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상시 부단한 반복 훈련을 하는 등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언제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엄중함 속에서 직원 간 상호 눈짓 또는 손가락 신호 하나만으로도 순식간에 달려들어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게 서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구대 팀원 간 수시로 상황에 맞는 대응 훈련을 통해 체질화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실제 총기 사용 훈련도 원거리 측정보다는 현실에 맞도록 2~3m 안팎의 근거리 상황도 대처할 수 있게 실시해야 한다. 그레아만 현장 출동 시 치명상을 방지할 수 있다. 이번 난동 사건도 출동 경찰관 두 명이 한자리에 있었다면 난동자가 스스로 범행을 포기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

이번 사건을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용납할 수 없겠지만, 경찰의 입장을 감안하면 먼저 무기를 사용한 이후, 상급 기관에 사후 보고하는 제도로 대응할 수 있었다면 피해를 줄일 수도 있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이와 함께 경찰관들의 현장 출동 때 대응 요령에 대한 평소 훈련이 잘 돼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지을 수 없다.

따라서 정치권과 시민단체, 경찰청 등이 함께 지혜를 모아 이번 인천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위급 상황에 대한 경찰 대응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하겠다.

광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